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실태, 양육분담 및 양육스트레스*

State and Perception of Five-day School Week System, Parenting Role-sharing and Parenting Stress*

고은별스토리랜드어린이집
원 장 오 경 숙
호서대학교 인간개발학부 아동학 전공
부 교수 한 유 미

Director of Goenbyeol Storyland Child-care Center
Child Care Center Director : Oh, Kyeong-Sook
Dept. of Child Studies in Hoseo Univ.
Associate Professor : Han, You-M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parents' experiences of child-rearing on Saturday with no class as well as their perceptions and demands on the Five-day School Week system. The study participants were 640 parents with first to second grade children.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arents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Five-day School Week System. Second, the Five-day School Week System increased fathers' role-sharing on the Saturday with no class. It was also related with some of the demographic variables and the Five-Week Workweek System of the father and the mother. Third, both the fathers and mothers had more parenting stress on Saturdays with no class than on Saturdays with classes. Their parenting stress on Saturdays with no class was related with some demographic variables and work flexibility.

주제어(Key Words): 주 5일 수업제(Five-day School Week System), 양육분담(parenting role-sharing),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이후 50년이 넘게 시행해 오던 주 6일 수업제에서 주 5일 수업제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2005년 전국의 모든 각 급 학교를 대상으로 월 1회 토요일휴업일이 지정된 이후, 2006년 현재 초·중학교는 월 2회, 고등학교는 월 1회 주 5일 수업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모든 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주 5일 수업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Hsu, 2002).

주 5일 근무제의 일환으로 시작된 주 5일 수업제는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가정-학교-사회가 교육 주체로서의 역할 분담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가정생활과 관련하여서는 여가의 확대, 새로운 가족문화의 형성, 가족생활 만족도의 증가 및 여유시간의 증대로 개개인의 잠재력 계발 기회가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유인식, 2003; 이윤미, 2004). 그러나 주 5일 수업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도 공존한다. 예를 들면, 2007년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면 현재 220일인 연간 수업 일수가 190일로 감소됨에 따라 학력 저하가 우려되며 토요일휴업일을 대신할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재와 교육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교육소외집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어촌이나 산간 지역 학생, 도시 저소득층 자녀들은 주 5일 수업제로 인해 부모님과 함께 노동을 하거나 혼자 집을 지키거나 PC방에서 하루를 보내게 될지도 모르며 여가시간을 능동적으로 이용해 본 경험이 부족하여 외식이나 놀이공원을 찾는 정도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소비형 가족 문화만 확산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강기리, 2005; 김성민, 2002).

주 5일 수업제의 실시는 가정생활에서부터 국가 경쟁력에 이르기까지 그 분야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클 수 있으므로 이의 전면적인 시행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주 5일 수업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주 5일 근무제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의 주 5일 근무제가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 5일 수업제의 도입은 특히 맞벌이 가족에게 심각한 양육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주 5일 근무제의 실시로 육아문제, 부부갈등, 가사분담 문제의 심화를 경험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심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주 5일 수업제에 관한 인식 및 실태조사(노인선, 2006; 이혜숙, 2004), 주 5일 수업제의 실천적 과제와 인프라 구축방안(강기리, 2005; 이윤미, 2001), 주 5일 수업제의 운영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김민경, 2005; 최미경, 2004)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 5일 수업제의 성공적 정착 여부나 프로그램 및 주 5일

수업제 자체에 초점을 둔 것으로 주 5일 수업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모 또는 가정생활의 변화는 다루고 있지 않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는 주말 여가생활과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정명경, 2004)가 있으나 주 5일 수업제로 인해 부모들이 양육과 관련하여 겪게 되는 변화나 이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를 조사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실태뿐 아니라 실제 주 5일 수업제의 부분적 시행 이후 발생한 부모의 양육분담과 양육스트레스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 5일 수업제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초등학교 1-2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학교에 가는 토요일과 가지 않는 토요일의 부모의 양육분담과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비교하고, 토요일휴업일의 양육분담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변인들이 무엇인지 규명할 것이다. 특히 주 5일 수업제가 본격화 될수록 부모의 소득차이, 근무형태, 거주지 및 주변 환경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등 다양한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는 현실과 부모의 직업용통성이나 가정지향성이 자녀양육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한경혜, 1995; 허경옥, 1994; 홍성례, 1995)에 비추어 토요일휴업일의 양육분담이나 양육스트레스를 인구통계학적 변인 외에 이들 변인들에 따라서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2007년 주 5일 수업제 전면 실시를 앞둔 상황에서 주 5일 수업제에 관한 부모의 인식과 요구도 뿐만 아니라 주 5일 수업제로 인해 양육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변화나 문제점 그리고 이에 미치는 변인 등을 밝힘으로써 주 5일 수업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어머니만 다루었음에 비해 본 연구는 어머니 못지않게 주 5일 수업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도 함께 조사함으로써 부모들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연구문제

1.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실태는 어떠한가?
2. 토요일휴업 유·무와 관련변인에 따라 부모의 양육분담은 어떠한가?
 - 2-1: 토요일휴업 유·무에 따라 부모의 양육분담은 차이가 있는가?
 - 2-2: 토요일휴업일의 부모의 양육분담과 관련된 변인은 무엇인가?
3. 토요일휴업 유·무와 관련변인에 따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떠한가?
 - 3-1: 토요일휴업 유·무에 따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차

이가 있는가?

3-2 : 토요일휴업일의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은 무엇인가?

각각 1개교와 3개교를 표집 하여 해당 학교에서 각 3개 학급씩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1) 주 5일 수업제 인식 및 실태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부모의 인식 및 실태는 선행연구(정명경, 2004; 참교육학부모회, 2005)를 기초로 총 4문항을 만들고 유아교육 전문가 2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2) 양육분담 척도

양육분담은 일상적인 양육 활동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가 더 많은 참여를 하는가에 관한 척도로서 선행연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의 중·소도시, 읍·면에 위치한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의 부모 640명(아버지 314명, 어머니 326명)이다. 연구대상은 대도시의 경우 서울의 강남과 강북 지역에서 각 1개교를 유의표집한 후 각 학교 당 2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했으며, 중·소도시와 읍·면은 경기도에서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29)

변인	변인	빈도(%)	변인	빈도(%)	
거주 지역	대도시	110(33.40)	자녀의 수	1명	56(17.80)
	중·소도시	119(36.20)		2명	202(64.10)
	읍·면	100(30.40)		3명	47(14.90)
	계	307(100.00)		4명 이상	10(3.20)
자녀의 연령	만 7세미만	153(48.60)	자녀의 성	남아	171(54.60)
	만 8세이상	162(51.40)		여아	142(45.40)
	계	315(100.00)		계	313(100.00)
자녀의 출생순위	첫째	171(54.10)	월 평균 수입	100만원미만	9(2.90)
	둘째	101(32.00)		100-199만원	39(12.60)
	셋째 이하	23(7.30)		200-299만원	97(31.30)
	외동이	21(6.60)		300-399만원	66(21.30)
	계	315(100.00)		400-499만원	40(12.90)
				500-599만원	21(6.80)
				600만원 이상	38(12.20)
				계	310(100.00)
부의 연령	29세미만	3(1.00)	모의 연령	29세미만	10(3.10)
	30-34세	50(15.90)		30-34세	105(33.70)
	35-39세	142(45.20)		35-39세	159(51.00)
	40-44세	102(32.50)		40-44세	32(10.30)
	45-49세	13(4.10)		45-49세	5(1.60)
	50세 이상	4(1.30)		50세 이상	1(0.30)
	계	314(100.00)		계	312(100.00)
부의 교육 수준	고졸이하	111(35.40)	모의 교육 수준	고졸이하	144(47.80)
	대졸	164(52.20)		대졸	136(45.20)
	대학원이상	39(12.40)		대학원이상	21(7.00)
	계	314(100.00)		계	301(100.00)
부의 직업 유형	무직	7(2.30)	모의 직업 유형	무직	143(47.40)
	생산·노무직	52(16.80)		생산·노무직	21(7.00)
	판매·서비스직	52(16.80)		판매·서비스직	46(15.20)
	사무직	61(19.80)		사무직	39(12.90)
	관리직	55(17.80)		관리직	10(3.30)
	전문직	82(26.50)		전문직	43(14.20)
	계	309(100.00)		계	302(100.00)

구들(유호용, 2001; 장혜경, 김혜영, 홍승아, 은기수, 이명진, 김영란, 주재선, 송지선, 2005)을 기초로 본 연구자가 총 10 문항을 제작하였다. 5점 척도로서 1점에 가까울수록 어머니의 양육분담 정도가 높으며, 5점에 가까울수록 아버지의 양육분담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토요일휴업일과 토요일수업일의 양육분담정도를 각각 체크하였으며 점수범위는 5-50점이며, 신뢰도 α 는 .89였다.

3) 양육스트레스 척도

양육스트레스는 토요일수업일과 토요일휴업일에 자녀양육이나 부모 역할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로 측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김기현, 강희경(1997)의 척도 중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 범위는 10-60점이며, 신뢰도 α 는 .93이었다.

4) 직업용통성 척도

직업용통성은 직무규칙과 직업 스케줄의 엄격성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Glass와 Camarigg(1992)의 도구를 수정·보완한 손유기(1998)의 척도 총 4문항을 사용했다. 신뢰도 α 는 .84이었다.

5) 가정지향성 척도

가정지향성은 가정 내 역할을 스스로 자발적인 수행영역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가정 내 역할수행을 우선순위로 중시하여 이를 통해 행복감을 추구하고자 하는 심리적 성향을 말하는 것으로 손유기(1998)의 척도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 α 는 .80이었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2006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 까지 질문지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5월 6일 토요일수업일과 5월 13일 토요일휴업일 이들의 상태를 질문지에 체크하게 하였다. 각 초등학교 교사의 도움을 얻어 총 780부(아버지용 390부, 어머니용 390부)를 배부하여 652부가 회수 되었으나 이중 응답이 불충분한 12부를 제외하고 총 640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회수율은 아버지 81%, 어머니 84%).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주 5일 수업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실태

1)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표 2〉와 같이 주 5일 수업제에 대해 아버지는 '다소 만

〈표 2〉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N=637)

	아버지(n=317)		어머니(n=320)	
	빈도	%	빈도	%
매우 만족	45	14.2	50	15.6
다소 만족	119	37.5	10	31.3
보통	103	32.5	102	31.9
다소 불만족	37	11.7	58	18.1
매우 불만족	13	4.1	10	3.1
계	317	100	320	100

족'이 37.5%, '보통'이 32.5%, '매우 만족'이 14.2%, '다소 불만족'이 11.7%, '매우 불만족'이 4.1%로, 과반수 아버지들(51.7%)이 주 5일 수업제에 대해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보통'이 31.9%, '만족' 31.3%, '다소 불만족' 18.1%, '매우 만족' 15.6%, '매우 불만족' 3.1% 등으로 절반에 가까운 어머니들(46.9%)이 주 5일 수업제에 만족하고 있었다.

2) 주 5일 수업제의 문제점에 대한 부모의 인식

〈표 3〉과 같이 아버지는 '맞벌이 경우 아이 돌보는데 부담' (40%)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여가활동을 못하는 아이들의 빈부격차' (19.7%), '게임이나 텔레비전 중독 가능' (17.5%), '사교육비 증가' (10.2%),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치와 탈선 위험' (9.2%), '혼자 있을 때 안전사고' (3.2%)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어머니의 경우에도 '맞벌이 경우 아이 돌보는데 부담' (37.1%), '여가활동을 못하는 아이들의 빈부격차' (20.5%), '게임이나, 텔레비전 중독 가능' (19.2%),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치와 탈선 위험' (10.9%), '사교육비 증가' (8.3%), '혼자 있을 때 안전사고' (3.2%) 등 아버지와 유사한 응답이 나타났다.

〈표 3〉 주 5일 수업제의 문제점에 대한 부모의 인식

(N=627)

	아버지(n=315)		어머니(n=312)	
	빈도	%	빈도	%
맞벌이 경우 아이 돌보는데 부담	126	40	116	37.2
빈부격차	62	19.7	64	20.5
게임이나 텔레비전 중독	55	17.5	60	19.2
맞벌이 아동의 방치, 탈선위험	29	9.2	34	10.9
사교육비 증가	32	10.2	26	8.3
혼자 있을 때 안전사고	10	3.2	10	3.2
기타	1	0.2	2	0.7
계	315	100	312	100

〈표 4〉 토요휴업일에 주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

(N=318)

	빈도	%
부모	232	73
없다	31	9.7
조부모	27	8.5
친척	6	1.9
가사보조자	3	0.9
기타	19	6.0
계	318	100

3) 토요휴업일의 자녀 양육 실태

〈표 4〉와 같이 주 5일 수업제 실시 후 토요휴업일에 주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은 '부모' (7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토요휴업일에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없다' 라는 응답도 9.7%로 나타났으며,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8.5%)와 '친척'(1.9%)이나 '가사보조자' (0.9%)가 돌본다는 경우도 소수 있었다.

4) 토요휴업일의 아동의 활동 실태

〈표 5〉와 같이 토요휴업일에 자녀들은 주로 '부모와 함께 집에서 보낸다'가(33.8%)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와 함께 여행이나 야외활동을 한다' (28.8%)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이들끼리만 지낸다' (9.9%), '친구와 같이 지낸다' (10.3%)라는 응답도 있었다. 이외에 소수의 응답으로는 '학원이나 공부방에서 지낸다' (5.0%), '학교나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5.0%)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간다' (3.3%) 등이 있었다.

〈표 5〉 토요휴업일의 아동의 활동 실태

(N=302)

	빈도	%
부모와 집에 있다	102	33.8
부모와 여행이나 야외활동을 한다	87	28.8
친구와 같이 지낸다	31	10.3
아이들끼리만 집에 있다	30	9.9
학원 또는 공부방에 간다	15	5.0
학교 또는 문화센터에 간다	15	5.0
어린이집 또는 놀이방에 간다	10	3.3
기타	12	4.0
계	302	100

2. 주 5일 수업제와 부모의 양육분담

1) 토요수업일과 토요휴업일의 부모 양육분담 차이

〈표 6〉과 같이 토요휴업일의 실외에서 놀아주기 항목을

〈표 6〉 토요수업일과 토요휴업일 부모 양육분담의 차이

(N=294)

	수업일 M(SD)	휴업일 M(SD)	t
음식 먹는 것 도와주기	2.14(0.83)	2.28(0.91)	-4.63***
옷 입는 것 도와주기	1.96(0.78)	2.13(0.89)	-6.27***
숙제, 공부 도와주기	2.21(0.91)	2.31(0.97)	-4.06***
책 읽어주기	2.30(0.91)	2.44(0.95)	-5.34***
TV시청이나 휴식하기	2.72(0.86)	2.79(0.87)	-2.49***
실내에서 놀아주기	2.77(0.88)	2.90(0.87)	-4.76***
세수, 목욕 도와주기	2.32(0.91)	2.48(0.99)	-5.06***
실외에서 놀아주기	2.92(0.92)	3.06(0.97)	-4.00***
현장학습(동물원, 박물관, 놀이동산, 영화등)	2.85(0.80)	2.91(0.77)	-2.35***
문화센터나 학원 데려다 주고 데려오기	2.49(0.99)	2.63(1.00)	-4.74***
계	2.47(6.15)	2.60(6.52)	-7.18***

제외하면, 모든 항목에서 토요수업일과 토요휴업일 양육분담의 평균이 3 이하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참여가 높았다. 그러나 종속 t 검증 결과 토요수업일(M=2.47)에 비해 토요휴업일(M=2.60)에 모든 항목에서 양육분담의 평균이 높아 주5일 수업제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7.18, p<.001).

2) 토요휴업일의 부모의 양육분담과 관련된 변인

〈표 7〉과 같이 토요휴업일의 부모의 양육분담은 가족 특성 중 거주 지역과 아동성별, 출생순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가족 변인 중 지역에 따라서는 토요휴업일 양육분담의 평균이 대도시 27.17, 중·소도시 26.07, 읍·면 24.92 이었으며, Duncan 검증 결과 집단 간의 차이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보다 양육분담이 유의하게 높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양육분담은 아들의 경우가 26.46으로 딸의 경우(M=25.26)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외동이 29.25, 첫째 26.15, 둘째 25.56, 셋째이하 23.27의 순이었다. Duncan 검증 결과 첫째와 둘째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의 개인적 변인에 따라서 살펴보면 먼저 아버지의 토요휴업일 근무여부에 따른 양육분담의 평균은 토요휴업일에 근무하지 않는 아버지가 28.05로 토요휴업일에 근무하는 아버지(M=24.26)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27.70, p<.001). 어머니 직업에 따라서는 취업모의 양육분담 평균이 32.81로 비취업모의 35.43보다 낮게 나타났다(F=11.58, p<.001). 한편 아버지의 경우와는 반대로 어머니의 토요휴업일 근무여부에

〈표 7〉 토요일업일의 부모의 양육분담에 관한 차이

(N=294)

			변인	N	M	SD	F
가족 특성	거주 지역	대도시	105	27.17a †	6.41	2.91*	
		중·소도시	113	26.07b	5.60		
		읍·면	100	24.92b	7.30		
	월평균 수입	200만원 미만 200만원~299만원 300만원~499만원 500만원 이상	45 92 102 57	24.22 26.45 26.54 25.56	6.99 6.05 6.00 7.64	1.58	
가족 특성	자녀의 성별	남	162	26.46	6.17	4.88*	
		여	136	25.26	6.95		
	자녀의 출생순위	첫째	163	26.15b	6.37	3.17**	
		둘째	97	25.56b	6.45		
셋째이하		22	23.27a	7.14			
외동이		20	29.25c	6.41			
아버지 특성	연령	35세 이하	75	26.72	5.84	2.65	
		36-40세	148	26.30	6.84		
		41세 이상	76	24.49	6.48		
	교육수준	고졸이하	102	24.99	6.31	1.71	
		대졸	159	26.45	6.33		
		대학원이상	38	26.53	7.88		
	직업유형	무직	7	28.86	9.41	1.90	
		생산/노무직	48	23.90	6.09		
		판매/서비스직	50	25.10	7.07		
		사무직	60	26.77	5.65		
관리직 전문직		52 78	26.33 26.76	5.30 7.24			
토요일업일 근무유무	근무	159	24.26	6.72	27.70***		
	휴무	140	28.05	5.59			
직업용통성	상	98	25.62	6.44	2.11		
	중	93	25.82	6.02			
	하	94	27.35	6.54			
가정지향성	상	76	27.45	6.12	2.25		
	중	105	25.50	6.71			
	하	111	25.77	6.41			
어머니 특성	연령	33세 이하	76	25.73	6.32	0.06	
		34-36세	107	26.07	6.24		
		37세 이상	114	25.92	7.06		
	교육수준	고졸이하	135	25.43	5.62	1.00	
		대졸	131	26.37	7.11		
		대학원이상	20	27.05	7.69		
직업 유무	비취업	136	35.43	7.09	11.58***		
	취업	155	32.81	6.05			
토요일업일 근무유무	근무	75	27.49	5.34	5.31*		
	휴무	223	25.52	6.75			
직업용통성	상	50	26.26	6.30	1.68		
	중	54	28.31	5.33			
	하	80	27.13	5.69			
가정지향성	상	91	25.84	6.31	0.16		
	중	111	25.78	6.62			
	하	95	26.27	6.78			

*p<.05, **p<.01, ***p<.001.

따라서는 토요일휴업일에 어머니가 근무할 때 양육분담의 평균이 27.49로 근무하지 않을 때(M=25.52)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3. 주 5일 수업제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1) 토요일수업일과 토요일휴업일의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차이

〈표 8〉과 같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토요일수업일(M=2.35)보다 토요일휴업일(M=2.52)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다($t=-6.30, p<.001$). 어머니의 경우에도 토요일수업일(M=2.62)보다 토요일휴업일(M=2.78)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t=-5.52, p<.001$). 이는 주

〈표 8〉 토요일수업일과 토요일휴업일의 양육스트레스 차이

	수업일 M(SD)	휴업일 M(SD)	t
아버지	2.35(8.39)	2.52(9.74)	-6.30***
어머니	2.62(8.57)	2.78(9.61)	-5.52***

5일 수업제로 인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낌을 시사한다.

2) 토요일휴업일의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

〈표 9〉는 토요일휴업일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표 9〉 토요일휴업일의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차이검증

변인		아버지(n=315)				어머니(n=318)			
		N	M	SD	F	N	M	SD	F
거주 지역	대도시	105	34.28c	9.72	18.20***	105	38.21a	8.93	23.60***
	중·소도시	112	30.16b	8.39		113	32.02a	9.32	
	읍·면	98	26.54a	9.34		100	29.95b	8.75	
월평균 수입	200만원 미만	45	31.52	10.60	2.31	45	30.47	10.50	2.31
	200~299만원	97	30.47	8.82		97	33.29	8.99	
	300~499만원	106	30.31	9.94		100	34.76	10.04	
	500만원 이상	59	29.96	9.88		59	34.42	8.87	
자녀의 성별	남	168	33.99	9.88	0.84	168	33.66	9.28	0.40
	여	141	32.98	9.47		141	32.96	10.05	
자녀의 출생순위	첫째	167	30.54a	9.41	4.14**	169	34.24ab	9.29	4.50**
	둘째	97	28.48a	9.56		101	31.05a	9.40	
	셋째이하	22	31.73a	10.38		22	34.18ab	9.63	
	외동이	21	36.29b	9.22		21	38.43b	11.43	
연령	상	80	31.57a	8.53	3.85**	114	33.18	8.71	0.91
	중	149	35.01b	10.21		112	34.44	10.58	
	하	81	32.57ab	9.41		82	32.63	9.78	
교육 수준	고졸이하	107	30.74a	9.60	6.77***	141	30.34a	9.43	17.28***
	대졸	164	34.98b	9.85		136	36.81b	9.19	
	대학원이상	39	34.59b	7.37		21	34.24b	6.91	
직업 유형	무직	7	34.86	11.70	0.48	142	32.80	9.83	1.34
	생산/노무직	51	32.94	10.14		158	34.09	9.52	
	판매/서비스직	50	32.92	9.72					
	사무직	61	35.08	10.70					
	관리직	55	32.78	8.87					
	전문직	82	33.72	9.15					
토요일휴업일 근무유무	근무	166	33.99	9.88	0.84	77	33.88	9.50	0.16
	휴무	144	32.98	9.47		231	33.37	9.71	
직업용통성	상	83	26.41a	9.54	10.68***	45	30.36a	10.04	5.53*
	중	122	31.34b	9.04		61	34.34b	8.01	
	하	100	32.53b	9.68		85	36.02b	9.67	
가정지향성	상	81	29.07	10.77	2.20	98	32.38	10.21	1.63
	중	116	30.05	9.29		118	33.54	9.78	
	하	116	31.86	8.94		98	33.75	10.39	
양육분담	상	97	32.28b	9.88	3.86*	97	34.15	8.83	0.28
	중	102	30.45ab	9.15		103	33.16	9.13	
	하	95	28.45a	9.63		100	33.76	10.39	

* $p<.05$, ** $p<.01$, *** $p<.001$.

스트레스를 각기 가족 특성과 부모 개인의 특성에 따라 분석한 일원변량분석표이다. 먼저 아버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특성에 따라 볼 때 토요일업일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거주 지역과 자녀의 출생순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 토요일업일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의 평균은 대도시 34.28, 중·소도시 30.16, 읍·면 26.54의 순이었으며, Duncan 검증 결과 집단 차는 세 집단 모두에 있었다($F=18.20, p<.001$).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서는 외동이 36.29, 셋째 이하 31.73, 첫째 30.54, 둘째 28.48이었으며, Duncan 검증 결과 외동이와 다른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 개인 특성에 따른 토요일업일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연령별로 볼 때에는 중간 연령 집단 35.01, 저 연령 집단 32.57, 고 연령 집단 31.57의 순이었으며, Duncan 검증 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저 연령 집단과 고 연령 집단 사이에서 나타났다($F=3.85, p<.01$).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졸이 34.98, 대학원 이상 34.59, 고졸이하 30.74의 순이었고, Duncan 검증 결과 집단 간의 차이는 고졸이하 집단이 다른 두 집단 간에 있었다($F=6.77, p<.001$). 한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의 직업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직업용통성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직업용통성 '상' 집단이 26.41, '중' 집단이 31.34, '하' 집단 32.53이었으며, Duncan 검증 결과 '상' 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10.68, p<.001$). 이외에도 토요일업일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 자신의 양육분담과도 관련이 있었으며, Duncan 검증 결과 양육분담 '상' 집단($M=32.28$)이 '하' 집단($M=28.45$)보다 유의하게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토요일업일 양육스트레스는 지역, 자녀의 출생순위 등의 가족 특성과 어머니 자신의 교육수준, 직업용통성과 관련이 있었다. 첫째, 지역에 따라 볼 때 토요일업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평균은 대도시가 38.21, 중·소도시 32.02, 읍·면 29.95순이었으며, Duncan 검증 결과 읍·면지역이 다른 두 지역보다 유의하게 낮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F=23.60, p<.001$).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서는 외동이의 경우가 38.43으로 가장 높았으며, 첫째가 34.24, 셋째 이하가 34.18, 둘째 31.05순이었다. Duncan 검증 결과 집단 간의 차이는 둘째 집단과 외동이 집단 간에 있었다($F=4.14, p<.01$).

둘째, 토요일업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어머니의 개인적 변인에 따라 살펴보면 대졸 어머니와 대학원 이상 어머니가 각기 36.81과 34.24로 고졸 이하 어머니($M=30.34$)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F=17.28, p<.001$). 직업용통성에 따라서는도 '중' 집단($M=34.34$)과 '하' 집단($M=36.02$)이

'상' 집단($M=30.36$)보다 유의하게 높음을 나타내고 있었다($F=5.53, p<.05$).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와 달리 토요일업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분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0.28, n.s.$).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전면 시행되는 주 5일 수업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현재 월 2회 토요일 실시되고 있는 부분적인 주 5일 수업제와 관련하여 부모들이 겪고 있는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발견된 주요 내용을 연구문제별로 정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첫째, 주 5일 수업제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모들은 전반적으로 주 5일 수업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5일 수업 선도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적자원부(2004)의 조사에서 '자녀의 휴식 시간이 늘어 마음이 편했으며'(41.3%), '가족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었다'(29.7%)는 긍정적 반응이 훨씬 많았던 것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부모들은 주 5일 수업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주 5일 수업제가 맞벌이 가족의 경우 아이를 돌보는데 부담이 되고, 여가 활동을 못하는 아이들이 느끼는 빈부격차나 게임이나 TV중독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주 5일 수업제의 실태를 살펴보면, 토요일업일에 자녀를 돌보는 주 양육자는 대부분 아동의 부모였으나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상당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부모들이 주 5일 수업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맞벌이 가족의 경우 아이를 돌보는 데 느끼는 부담을 꼽고 있었던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되면 토요일업일에 아이들끼리, 또는 친가와 같이 지내게 됨을 지적한 선행연구들(이미라, 2002; 참부모학부모회, 2005)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 볼 때 주 5일 수업제는 사회적으로 '나 홀로 학생'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한겨레신문, 2005.4.6) 자녀의 토요일업일에 부모가 출근해야 하는 가정의 아동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 해소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2. 주 5일 수업제와 부모의 양육분담

본 연구 결과 토요일업일과 토요일업일 모두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 5일제와 관계있

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어머니가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은 퇴근 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에 심리, 정서적인 준비 없이 일상적으로 자녀와 대화하거나 함께 놀아주면서 가정 내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높다는 선행연구(장혜경 외 7인, 2005)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토요일업일 아버지들은 자녀와 텔레비전 시청이나 휴식하기 등도 많이 하는 등 아버지들의 양육참여는 어머니들과 양적 차이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토요일업일에 비해 토요일업일에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모든 항목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가 양성 평등한 양육문화를 정립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토요일업일의 양육분담과 관련된 가족 특성 및 아버지와 어머니의 개인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대도시에 거주하고, 자녀가 아들이고, 외동아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읍·면이나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는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가치관으로 양성 평등한 양육문화가 정착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딸보다 아들에 대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게 나타난 것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은 항목이 주로 남아들이 좋아하는 실외 놀이 등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며,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성인 딸보다는 동성인 아들을 다루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추측된다.

다음으로, 토요일업일의 양육분담은 아버지가 토요일업일에 근무 하지 않을 때 아버지 양육참여가 증가하였으나 교육수준, 직업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이나 직업용통성이나 가정지향성 등의 심리적 변인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은 가사 분담자 역할을 높게 수행하며(송혜림, 1988; Ross et al., 1983), 남편의 직업용통성이 자녀양육이나 가정 내 역할 수행에 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선행연구(홍성례, 1995)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 간의 차이는 선행연구의 경우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살펴본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주 5일 근무제와 자녀의 주 5일 수업제 라는 새로운 상황에서의 아버지의 양육분담을 다루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주 5일 수업제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토요일업일에 비해 토요일업일에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5일 수업제를 앞두고 많은 기관이나 전문가들(참부모 학부모회, 2005; 한국경제, 2001)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아울러 주 5일 수업제로 인해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도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결과는 과거에 비해 아버지가 양육에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및 양육지원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토요일업일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가 토요일업일에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는 거주 지역, 자녀의 출생순위, 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용통성과 관련이 있었고, 어머니의 토요일업일 양육스트레스는 거주 지역, 자녀의 출생순위,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용통성과 부모의 양육분담과 관련이 있었다. 아버지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자녀의 출생순위가 높을수록(자녀수가 많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연령은 41세 이상일 때보다 40세 미만일 경우, 직업용통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양육분담을 많이 할수록 토요일업일에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들도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자녀의 출생순위가 높을수록(자녀수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용통성이 낮을수록 토요일업일에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으나 어머니의 경우 연령이나 양육분담에 따라서는 토요일업일 양육스트레스가 차이 없었다. 부모 모두 직업용통성이 낮을수록 토요일업일에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직업용통성이 가족 상호작용 빈도와 질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며(손유기, 1998), 직업용통성이 높은 경우 가정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손유기, 1998; Staines, 1986)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지원 대책이나 양육에 대한 사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뿐만 아니라 토요일업일에 아버지는 양육분담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는 예전에 비해 아버지도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상당히 느끼고 참여함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선미정, 1995). 그러나 토요일업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모의 양육분담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기능을 하며(오은영, 2001),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Ross & Mirowsky, 1988)과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주 5일 수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직업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예, 탄력근무시간제)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주 5일 수업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높인다는 점에서 가정생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있

으므로 주 5일 수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부모의 주 5일제 근무의 시행이 선결되고 다양한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강기리(2005). 주 5일 수업제 정착을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경기도 교육청(2003a). 주 5일 수업제 선도학교 운영 사례집. 수원: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2004). 주 5일 수업제의 효율적인 운영. *경기교육*, 162, 17-71.
 김기현, 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49.
 김성민(2002). 주 5일 근무제와 청소년 수련관. *살리시오가족*, 57, 27-29.
 김민경(2005).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일무일 학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인선(2006). 초등학교 주 5일 수업제 연구. 학생들의 학습 활동과 교사·학부모의 제도 인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선미정(1995). 취학 전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스트레스 연구. *기전여자전문대학 논문집*, 15, 33-41.
 손유기(1998). 남편의 가정 내 역할인지와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해림(1988). 남편의 가사노동 협력에 대한 부인의 기대 및 남편의 협력실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은영(2001). 취업모의 양육태도, 배우자의 지지 및 직업 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인식(2003). 학교 주5일제 도입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효용(2001).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및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정서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미라(2002). 초등학교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윤미(2001a). 학교 주 5일제 운영 관련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정책연구 CR2001-26, 한국교육개발원.

이윤미(2004). 주 5일 수업제 모든 학교 월1회 실시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 정책 연구
 이해숙(2004). 초등학교 주 5일수업제 시행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춘천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혜경, 김혜영, 홍승아, 은기수, 이명진, 김영란, 주재선, 송지선(2005). 가족실태조사, 여성능력개발원, 278-338
 정명경(2004). 주 5일 근무에 따른 부모-유아의 주말 활동실체 및 요구조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미경(2004). 초등학교 주 5일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경혜(1995). *중년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95가정 복지 세미나,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허경옥(1994). 부의 자녀양육에의 참여시간 결정 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3), 63-79.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경희대학교석사학위논문.
 Glass, J. Camarigg, V. (1992). Gender, Parenthood and Job-Family Compatibi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131-151
 Hsu, M.(2002) The impacts of Two-day weekend system on living culture along with efficient countermeasures-Taiwan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Economics English Edition*. 3(1).
 Ross, C,E. John Mirowsky, J., & John Huber(1983), "Dividing Work, Sharing Work, and in-between: Marriage patterns and depression", *American Sociodogial. Review* 48, 809-823.
 Ross, C, E., & Mirowsky, J.(1988). Child Care and Emotional Adjustment to Wive's Employ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9, 127-138
 Staines, G. L.(1986). Me's Work Schedules and Family Life. in R.A.Lewis & M.B.Sussman(eds). *Marriage and Family Review*: 43-65.
 한겨레신문(2005. 4. 6). 부산 어린이 대공원 '숲 체험 학습 센터'
 한국경제(2001. 9. 5). 주 5일 근무에 따른 여가활용 방안.
 http://www.hakbumo.or.kr. 주 5일제 시행 학부모설문조사, 참교육 학부모회 (2005. 11. 1).

(2006년 8월 31일 접수, 2006년 10월 18일 채택)